

## [정규과정] 대중음악과 친해지기

---

주제 : 대중음악! 조성에 대해 알아보자



노래를 잘 부르려면 자신의 음역에 맞는  
곡과 조(key)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조성(Tonality)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 
정리해보았습니다.

## 01. 조성(Tonality)

곡의 시작은 으뜸음으로 시작하여 으뜸음으로 끝나게 되며, 곡의 기준 음과 음계를 알 수 있다.  
즉 한 음이 기준이 되어 곡의 멜로디와 화성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.

## 02. 조(Ke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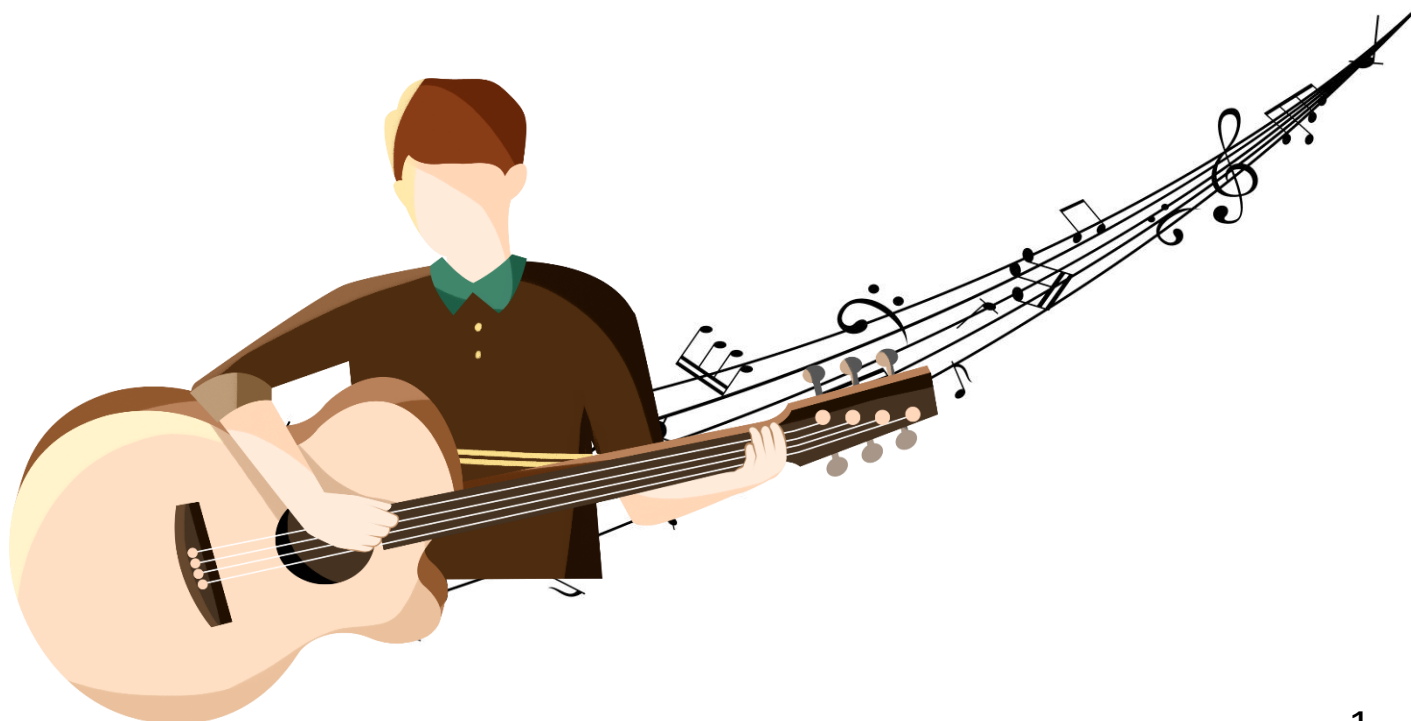
으뜸음을 기준으로 하여 배열된 음계, 화음의 진행으로 나타나는 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 
C음인 도를 시작하는 으뜸음의 Major scale로 만들어진 조를 C Major Key라고 한다.  
C음은 <다>로 다장조라고도 한다. 즉 조는 음이름의 수만큼 만들어 진다.

## 03. 으뜸음(Tonic)

음계는 어떤 음 위에서라도 만들어 질 수 있다.  
음계의 시작하는 음은 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음으로 이 음을 으뜸음(Tonic)이라 한다.  
조의 이름은 으뜸음의 음이름으로 결정된다.

## 04. 임시표(Accidental Mark)

으뜸음이 어떠한 음을 갖는 것에 따라 #(샹), b(플랫)이 붙는다.  
장조음계 조건에 따라 #, b 을 붙이는데 이것을 임시표라 한다.  
각 조성에 따라 임시표가 1~7개까지 붙이게 된다.





## 05. 조표(key signature)

기준음에 따라서 붙는 #(샵), b(플랫)은  
악보 첫부분의 음자리표와 박자표 사이에 표기하는 데,  
이것은 임시표가 음계에 따라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 
악보를 볼 때 어려움을 겪게 되어 하나의 묶음으로 표기한 것을 조표라고 한다.

## 06. 장조 (Major key)

조표에 따라 #(샵)이 붙는 순서는 “파 도 솔 레 라 미 시 (F C G D A E B)”로  
마지막 # 자리의 다음 음이 으뜸음이 되며 화려했고 밝은 느낌을 갖는다.  
b(플랫)이 붙는 순서는 “시 미 라 레 솔 도 파” (B E A D G C F)이며  
부드럽고 침착한 느낌의 감성적인 발라드에 사용 된다.  
장조와는 달리 단조(Minor Key)는 대체로 어둡고 슬픈 느낌을 갖고 있다.